

신태용호 코칭스태프 탑승 완료

전경준·김남일·차두리·김해운 등 선임 피지컬 전문에 이재홍... 핵심은 정신력·소통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향한 신태용호가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2일 신태용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에 전경준(44)·김남일(40)·차두리(37)·김해운(44)·이재홍(34) 등을 선임했다. 김해운은 골키퍼, 이재홍은 피지컬 전문 스태프다.

신태용 감독이 지난 4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지 8일 만이다.

눈에 띄는 점은 김남일과 차두리다. 두 코치는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이다. 신 감독은 취임 당시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 김호근 기술위원장은 "그 동안 대표팀 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차기 감독 선임 요건으로 소통을 언급했다.

김남일 코치의 합류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예상됐다. 신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김남일 코치도 머리에 있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은 지난 2015년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축구협회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올 초

최용수 감독을 도와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에서 코치직을 맡았다. 하지만 최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김남일 역시 자유의 몸이 됐다.

김남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공격수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진공 청소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한 카리스마로 존재감을 뽐냈던 경험으로 짧은 시간에 분위기를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코치는 지난 12일 신 감독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FC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전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제기된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에 대해 "마음 같아서 들어가서 '빠따(배트)'를 들고 싶다"며 뼈 있는 얘기를 했다.

차두리 코치는 3개월만에 대표팀에 재승선했다. 차 코치는 율리 슈틸리케 전 감독 시절인 지난해 10월 전력 분석관으로 후배들과 함께 했지만 부담감을 이유로 6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도 대표팀 합류를 고사했지만 신 감독의 삼고초려 끝에 코치직

을 수락했다. 신 감독은 차두리 코치가 특유의 소탈한 성격과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포용하고 원팀(One Team)으로 묶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전경준 코치는 협회 전임지도자 출신으로, 2015년 리우 올림픽 예선부터 최근의 20세 월드컵까지 오랜 기간 신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신뢰를 쌓았다.

김해운 코치는 성남 일화에서 신태용 감독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다. 20세 월드컵 대표팀에서도 골키퍼 지도를 맡은 경험이 있고, 이재홍 피지컬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대한축구협회 피지컬 지도자로 근무했다. 올 시즌은 부산 아이파크에서 일하고 있다.

신태용호는 다음달 31일 열리는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이란과의 홈경기를 위해 8월28일 경기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첫 소집을 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기 소집도 염두해 두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신 감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8월21일 통틀 예정 이다. /뉴시스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김남일 코치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국립대 배드민턴 대회 '전북대 왕좌'

전국 10개 대학 참가... 4개 부문 우승 · 3개 부문 준우승으로 종합우승 차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최근 열린 제3회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 배드민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대학교 주최로 전국 10개 대학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배드민턴 동호회(회장 변재욱) 25명이 출전했다.

전북대팀은 남자 40대에서 변재욱(총무과)·성현경(자연대) 직원이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 여자 40대 송운경(공대)·장미경(학사관리과), 남대 30대 김동현(산학협력과)·송정호(산학협력과), 여자 30대 송은정(기획과)·주성희(산학협력과) 등 4개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3개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변재욱 동호회장은 "지난 1년 간 열심히 다져온 실력과 단합된 힘이 기반이 돼 두루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북포대학교에서 열리는



전북대학교가 최근 열린 제3회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 배드민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총장은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 국립대 교직원 배드민턴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학의 위상을 높여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문체부 장관 "체육인 복지법 만들 것"

체육계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위기극복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도종환 장관(사진)은 13일 오후 1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베이징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체육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장, 최일홍 전 국민생활체육회장, 장항숙 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전인체육단체장과 임병장 대한민국 학술원 체육학 회원, 홍양자 전 한국여성체육회장 등 학계 원로들, 정현숙(1973년 사라예보세계탁구선수권 단체인 금메달), 조혜정(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배구 동메달) 씨 등,



경기인 출신들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 체육을 통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체육인들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체육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석한 체육계 주요 인사들의 체육계 화합 방안과 새 정부 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체육인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 장관은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체육인 진로 지원 통합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도 장관은 이번 체육계 주요인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육계 현장 방문과 같이 체육계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시장배 수영대회 오는 15일 팡파르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 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제13회 전주시장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다.

전국 선수단 5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인 20대부터 60대까지 5개그룹으로 나눠 점영, 배영, 평영, 자유형, 각각 50m, 100m의 개인전 경기로 열린다.

또한, 단체전으로 혼성계영, 혼성혼계영, 계영, 혼성계영 200m 경기가 펼쳐지며, 학생부 경기가 신설돼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등부로 나눠 선수비선수로 구분해 경기가 치러진다.

오재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수영의 저변확대 및 보급을 통한 수영 경기력 향상과 전국 규모 대회를 통한 동호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